

# 청정예능 '가시나들', 이대로 끝내긴 너무 아깝다



## 호평 받는 분위기지만 시청률은 고전

가하기 전에 소관순 할머니를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유정은 문소리를 마을어귀까지 배웅했다. 문소리는 '이렇게 베풀어 줬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이라며 이야기를 꺼냈다. 유정은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다 말고, 어린 마음에 아픈 할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자책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 문소리가 유정의 엄마와 똑같은 사실을 알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모든 장면이 잔잔했고, 자연스러웠다.

"나는 한글을 못 배웠습니다. 어릴 때 마을에 한글 알려주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나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 찾아가도 '가시나'가 글을 배워서 뭐하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자주 찾아가니까 이름만 알아라 해서 제 이름 박무순만 썼습니다. 영감만 만나 서울로 시집을 갔습니다."

처음 지하철이 생기고 뒀는데 글을 모르니 못 내렸습니다. 몇 번을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했는지도 몰릅니다. 하루종일 지하철만 타다가 파출소에 갔습니다. 많이 칭찬했습니다. (...) 다 들어서 배우면 여파 쓰겠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고 살기가 서러웠습니다. 나 대신 글을 읽어주던 영감님이 죽고 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 탁현 마을로 왔습니다. 노인들 모이다 한글을 알려준다는 학교가 있어서 일 주일에 한 번 공부하러 갑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고 다시 수

업이 시작됐다. '문해 학교'에 모인 할머니들은 중간시험을 보느라 분주했다. 시험을 통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점검한 후에는 박무순 할머니가 라디오에 보낸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할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꼭꼭 눌러 쓴 편지가 양희은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또랑또랑 전해졌다. 어떤 사연일지 궁금해 하며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지만, 이내 울컥하고 말았다.

단지 '가시나'라는 이유로 한글을 배울 수 없었던 할머니는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자신 이야기로 털어놓았다. 글을 몰랐기에 혼자 지하철을 탈 수도 없었고, 어린 자식들이 책가방을 챙길 때도 선뜻 도와줄 수 없었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운 우리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무게의 심정일 것이다. 모르고 사는 게 서러웠다는 말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에게 글을 배우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생각해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 ▲ 청정 예능을 앞으로도 더 오래 볼 수 있을까

3.1% → 2.8% → 3.0%. 이 숫자의 정체가 '시청률'이라는 점을 본다면, 분명 낙관적이라 말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일요일 저녁 예능의 성적이란 것도 한다면 대답은 조금 더 암울해진다. 실제로 경쟁

프로그램인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14.0%, SBS '집사부일체'는 7.8%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저 숫자가 주는 착잡함은 더욱 커진다. 이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이 된 상태라면 당장 폐지를 걱정해야 할 것이고, 아직까지 파일럿 신분이라면 정규작 채용을 우려해야 한다.

'가시나들'은 후자의 위치에 처해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칭찬 일색이다. 보기 드문 현상이다. 문제는 그와 같은 좋은 평가들이 정규 편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다. 권성민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에 넘칠 정도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 '얼떨떨하기도, 감사하기도 하'다면서 "결국 파일럿의 첫 번째 목적은 레귤러로 가는 것"이라고, "우리 예능의 결정권은 호평보다는 숫자에 움직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 다음이란 '가시나들'을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생사여탈권을 지닌 '숫자', 시청률이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제 '가시나들'은 단 1회 분량(6월 9일 일요일 오후 6시 45분에 방송)을 남겨두고 있다.

여전히 할머니들이 들려줄 이야기는 많이 남아 있어 보인다. 그들의 인생을 담아낸 시를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다. 또 짜깁들과의 사이도 진짜 할머니와 손주마냥 친근해졌는데, 그 관계가 주는 따뜻한 위로가 더없이 푸근하다. 부디 이 '청정 예능'이 성급히 끝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언제나 그렇듯 예능판에는 이야기 거리가 넘쳐난다. '예능 치트키' 백종원은 자신의 이름을 또 하나의 프로그램(SBS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을 시작했고, 분식을 메뉴로 들고 나온 강호동은 "우리 주방은 이번엔 행복보다 존중과 배려의 콘셉트"라며 이수근과 은지원을 다독이고 있다(tvN '강식당'). 비판과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는 SBS '미운 우리 새끼'와 MBC '나 혼자 산다'는 여전히 가장 뜨거운 화제를 이끌어 낸다. 예능의 골목은 어김없이 시끄럽지만 하다.

이처럼 시끌벅적한 곳은 따로 있는데, 정작 눈길은 다른 곳을 향한다. 이상한 일이다. 게다가 그곳은

확자지깁한 곳도 아니고, 그저 조용하기만 하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다. 작위적인 설정이 없고, 인위적인 갈등이 없다. 그럴 경우에 보통 (제작진은) 자극적인 편집을 시도하기 마련인데, 거기엔 그런 무리수도 없다. 그래서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해진다. 흔한 말로 '힐링'하게 된다. 그 평화로운 곳은 바로 MBC '가시나들'이다.

## ▲ 잔잔하고 가슴 뭉클한 예능 '가시나들'

이처럼 시끌벅적한 곳은 따로 있는데, 정작 눈길은 다른 곳을 향한다. 이상한 일이다. 게다가 그곳은

마음이 안 놓이는 기라." 이남순 할머니는 짜깁 이브와 육반장(육중완)과 함께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와 옷을 샀다. 정을 보다가 사야겠다 싶은 물건이 보이면 발길을 멈추서는 할머니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집으로 돌아와 잡채를 만들다 말고 흥에 겨워 당실당실 어깨춤을 추기도 했다. 소관순 할머니는 짜깁 유정을 마을회관에 데려가 화투를 가르치고 과전을 만들어 먹었다. 중간에 막걸리 한잔으로 목을 축이기도 했다. 집에서는 유정과 함께 베이커업을 하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문소리는 가정방문을 마치고 귀

## 진화한 시청자와의 수 싸움이 기대되는 '검법남녀2'

"한 번 뺨밤(뺨친 효탕)은 영원한 뺨밤"이라고 했다. 까칠한 법의 학자 백법(정재영 분)은 여전히 "질문이 틀렸어"와 "나"를 입에 달고 부검을 진두지휘했다. MBC '검법남녀 시즌2'(연출 노도철, 극본 민지은·조원기, 이하 '검법남녀2')에서도 "질문이 틀렸어", "나"는 여전히 했다. 지난 3월 첫 방송한 '검법남녀2'는 첫 화부터 크게 세 축의 사건을 보여준다. 시즌 1 엔딩을 장식했던 '오만상'

사건'에 대한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인천 마약밀매 조직의 보디 패커(body packer, 마약 봉지를 삼켜 운반하는 것) 사망 사건, 사내 성희롱 피해자의 죽음 등 시즌 1의 굵직한 사건과 사회적 이슈를 초반부터 배치했다. 여기에 '닥터'라는 의문의 인물을 추가시키며 미스터리를 배가했다. 백법은 '오만상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패자와 소의 대립골(골반과 무릎 사이에 위치한 뼈)에 구멍을 뚫는가 하면, 사내 성희롱

피해자이자 살인 미수의 피해자가 사실은 자해를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법의조사관 장성주(고규필 분) 대신 마약을 삼키는 등 과하지 않던 법의학자의 면모를 보인다. 시즌 2의 큰 틀은 피해자를 부검하는 과학 법의학과 기해자를 수사하는 검사의 '공조'다. 다만 1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신임 검사였던 은술(정유미 분)은 '1학년' 검사로 한 단계 성장했다. 아직은 심문이 능숙하지만 양지



만, 시즌 1처럼 감정만을 앞세우지

는 않는다. 나름 차분하게 피의자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해 심문하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즌 1 후반에 등장해 극의 물입을 높인 베테랑 도지환 검사(오만석 분)는 한층 능글능글해져서 돌아왔다. 그러나 그 능글함이 반기는 건 산전수전 다 겪은 그의 수사력과 백법과 티격태격하는 '공조'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진화한 것은 캐릭터만이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동부지검 세트도 시즌 1보다 번듯하고 정교해졌다. 영화 촬영 등에 주로 활용되는 카메라를 동원해 영상미에도 신경을 썼으며, 장르물이 갖는 느낌과 물입을 높이기 위해 좌우를

## 빌보드, 방탄소년단 '페르소나' 2019 베스트 50 앨범 선정

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의 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가 빌보드 선정 2019 베스트 앨범 50'에 선정됐다. 미국 빌보드는 지난 3일(현지시간) 올해 지금까지 발매된 앨범 중 베스트 앨범 50개를 선정한 2019 베스트 앨범 50' 목록을 발표한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MAP OF THE

SOUL: PERSONA 또한 이름을 올렸다. 빌 보드는 MAP OF THE SOUL: PERSONA를 선정한 이유로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방탄소년단의 발전에 영감을 주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음악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빌보드는 '타이틀곡 'Boy With Luv'는 시상적 무대와 SNL 무대의 힘 뿐만 아니라 할시의 카메오 등 영향이 더해져 핫 100 차트에서 가장 크게 히트 친 노래가 됐다'며 "그러나 'Boy With Luv'는 방탄소년단이 선보이는 역동적인 7곡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타이틀곡 뿐만 아니라 수록곡들 또한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빌보드가 이번에 발표한 2019 베스트 앨범 50'은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발매된 앨범 중 스태프들이 선정한 베스트 앨범이다. 순위는 없고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방탄소년단과 함께 이름을 올린 가수들의 앨범으로는 아리아나 그란데(Ariana Grande)의 'Thank U, Next', 비온 세(Beyonce)의 'HOMECOMING: The Live Album' 등이 있다.

##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음력 5월 3일)



▶**띠** 직분에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동로나 후배 잘못으로 돌리지 마라. 사랑하는 자를 진실로 대할 때 그 사람에게서 멋진 지혜를 얻어 활력소가 된다. 사, 오, 흥성씨 은근한 사랑이 정열적이 되니 매사 순조롭구나. 동쪽이 대길.



▶**띠** 계약건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듯. 애정은 한층 더 진해진다. 부정한 사랑이라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다. 미련 두지 말고 빨리 정리하라. 사, 사, 흥성씨에게 행운이 올 듯. 충고하는 자가 귀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것.



▶**띠** 생각한 일이 늦어진다고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 산에서 물을 찾지 말고 계곡으로 가라. 물소리가 들리는 남, 동쪽이 행운. 사, 사, 흥성씨 마음 풀어 줄 것이다. 돼지, 원숭이, 뱀띠와 함께하면 더욱 좋은날이 될 듯.



▶**띠** 경쟁보다는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남의 것만 탐내지 말고 상부상조함이 어떨까. 남, 서쪽 사람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주관대로 일을 처리하여 자기위치를 확보해야 후회할 일 없겠다. 소, 개, 용띠가 신경 쓰이는구나.



▶**띠** 자분이 없어 고전하고 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감히 추진하라. 지금의 진실과 재능이라면 분명 빛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탐욕이나 야심이 숨어 있다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다. 2, 9, 10월생 남녀를 조심하라.



▶**띠** 주변이 다소 어수선하더라도 침착하게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좋겠다. 능력을 한껏 발휘하니 직장이나 가정에 빛이 드는구나. 오, 사, 흥성씨 투기는 금물. 남의 말 따르지 마라. 후회할 일 생기겠다. 주관대로 할 것.



▶**띠** 끈질긴 인내와 지혜로 대처할 때이다. 주위사람들과 상부상조한다면 좋은 성과 있을 듯. 직장 다니는 여성은 집안살림 뒷전으로 미루다가 정이 좋은 부부라도 사이가 멀어질 듯. 3, 5, 9월생 적극적인 애정표현이 필요할 때.



▶**띠**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마다하지 않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대단한 용기가 있다. 다만 한 번 좌절하면 절망에 빠져버린다. 1, 7, 12월생 지금의 생활이 최악이라 생각 말고 스스로를 위해서 과감하게 처신하라.



▶**띠** 자기 임무에만 정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뜬소문에 동요하지 말고 소신대로 처신하라. 사업구상은 좋으나 우선 믿는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조금 양보하는 자세야 더 큰 이익이 온다. 3, 5, 11월생 행운을 잡아라.



▶**띠** 차차 어둠이 깊고 새로운 일이 생길 수. 희망을 품고 매진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 나타난다. 2, 8, 11월생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할 때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음을 전하면 마침내 웃음꽃이 피겠다.



▶**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허황된 욕심보다는 더욱더 노력하는 자세가 요망.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격. 차분히 해결책을 찾아라. 7, 8, 9월생 현색이 힘줄 중.



▶**띠** 그동안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시기이다. 단호한 의지가 필요할 때. 부린 것들을 곧 수확하게 된다. 남자가 하는 일은 순조롭고 여자는 초조함뿐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라. 미혼 3, 4, 12월생 노란색이 행운.